혼자인 QA가 AI로 협업 가이드를 만들어 15명 팀에 버그 관리법을 가르친 방법

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 교육·학습을 위한 AI 활용 분야 사용 도구: Claude

QA 1명 → 팀원 15명
입사 직후, 팀에서 유일한 QA로 전원 교육

AI는 초안 구조화
규칙은 내가 정하고, AI가 역할별 가이드로 정리

규칙 그대로 론칭까지
레이블 규칙 준수, 대시보드로 현황 자동 공유

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새 회사에 입사해 QA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15명 팀에서 QA는 저 혼자였습니다.

버그 관리 도구(지라)는 쓰고 있었지만, 상위 분류(에픽)가 많아 한눈에 보기 어려웠고 상태와 레이블 기준이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15명에게 "이렇게 바꿔 주세요"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규칙을 세우는 것보다, 모두가 이해하고 지키게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제가 정한 규칙 메모(상태 흐름, 역할별 할 일, 레이블 기준)를 Claude에 주고, **읽는 사람별로 정리된 가이드 초안**을 받았습니다. 규칙은 제가 정하고, AI는 구조를 잡았습니다.

가이드 구성	내용
1. 이슈 처리 흐름	등록부터 종료까지 상태 7가지와 각 상태의 뜻
2. 역할별 필수 규칙	QA: 레이블에 발견 버전 · 카테고리 기입, 수정 빌드 기록 작업자: 상태 변경 · 본인 할당 · 코멘트, 딱 3가지
3. 우선순위	모든 버그에 중요도 지정 → 수정 시급도 판단 기준
4. 실시간 현황	대시보드에서 상태별 분포와 누적 통계 확인
5. 바꾼 이유	분류는 줄이고 레이블은 자세히. 바뀐 부분만 신경 쓰면 되도록

할 일 → 작업 중 → 확인 중 (QA) → 종료

곁가지 상태: 보류 RE-OPEN KNOWN ISSUE

가이드의 이슈 처리 흐름. 회사 · 프로젝트 이름은 뺐습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가이드를 먼저 공유하고, 회의에서 발표하며 15명 전원에게 설명했습니다.
- 팀 전체가 레이블 규칙을 지켰고, 덕분에 대시보드가 상태별 현황을 자동으로 집계했습니다. 유관 부서도 같은 화면으로 빌드 상태를 봤습니다.
- 이 규칙으로 론칭까지 버그를 관리했습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

- **가르치기 전에 부담부터 줄였습니다.** 큰 틀은 그대로 두고 바뀐 부분만 알려줬습니다.
- **역할별로 꼭 할 일만 적었습니다.** 작업자는 3가지만 지키면 되게 했습니다.
- **완성본이 아니라 협의의 시작점으로 냈습니다.**

> 가이드 마지막 문장: "본 가이드는 완결된 규칙이 아니고 협의 문서의 시작점인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 **AI는 구조, 결정은 사람.** 어떤 규칙을 둘지는 제가 정하고, AI에게는 읽기 쉬운 순서와 표현만 맡겼습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1. 정한 규칙을 메모로 적어 AI에 주고, "역할별로 나눠서 정리해 줘"라고 요청합니다.
2. 받은 초안에서 기존과 바뀐 부분만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3. 문서를 먼저 공유하고, 회의에서 짧게 발표하며 질문을 받습니다.
4. 대시보드처럼 규칙을 지킨 결과가 바로 보이는 장치를 붙입니다.

팀에 새 도구나 규칙을 들여올 때, 혼자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회사명 · 프로젝트명 · 내부 화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과정 기록: **jchtest.tistory.com**